



- 1. MAIN PAGE
 - 2. ABOUT
- 3. CHARACTER
 - 4. FASHION
 - 5. NEWS



101마리의 달마시안의 개의 스핀오프격 실사 영화. 크루엘라 드 빌의 젊을 시절을 다루며 배경을 70년대 후반으로 옮겼다.

> 처음부터 난 알았어. 내가 특별하단 걸. 그래서 난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로 했어 잘가, 에스텔라 난 이제 크루엘라야!

Cruella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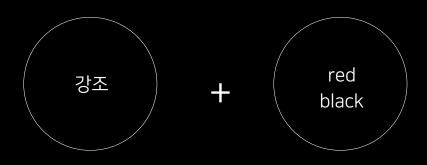
영화의 포인트 컬러와 ("RED" , "BLACK"), 영화의 주제인 '패션'을 강조하여 디자인 했습니다.

컬러

영화의 포인트 컬러인 red & black 색상을 메인색상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하였습니다.



키워드



타이포그래피

Han Sans, 본고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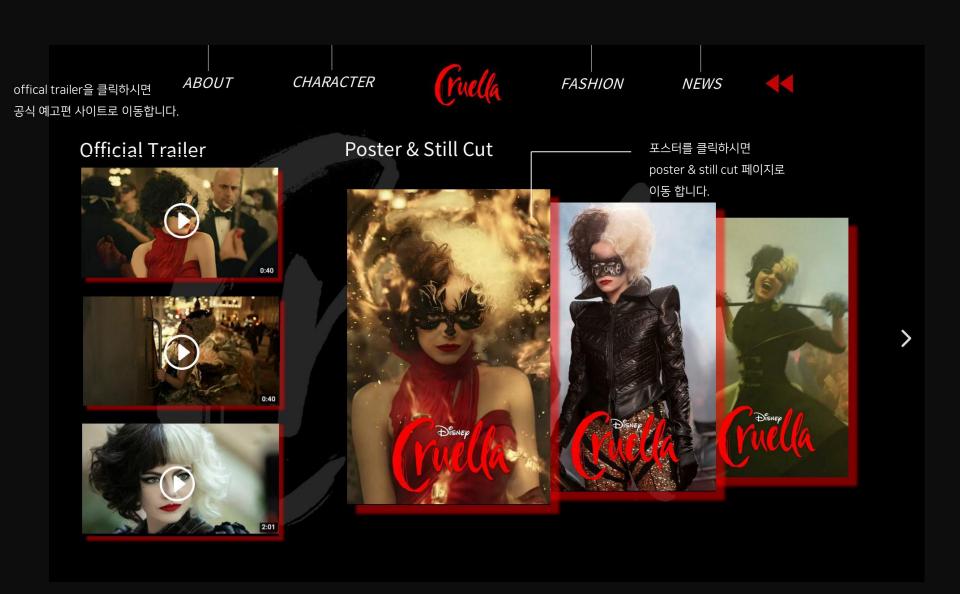
Main page-1 은 about, character, fashion, news로 구성된 상단 메뉴바가 있습니다.

상단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다음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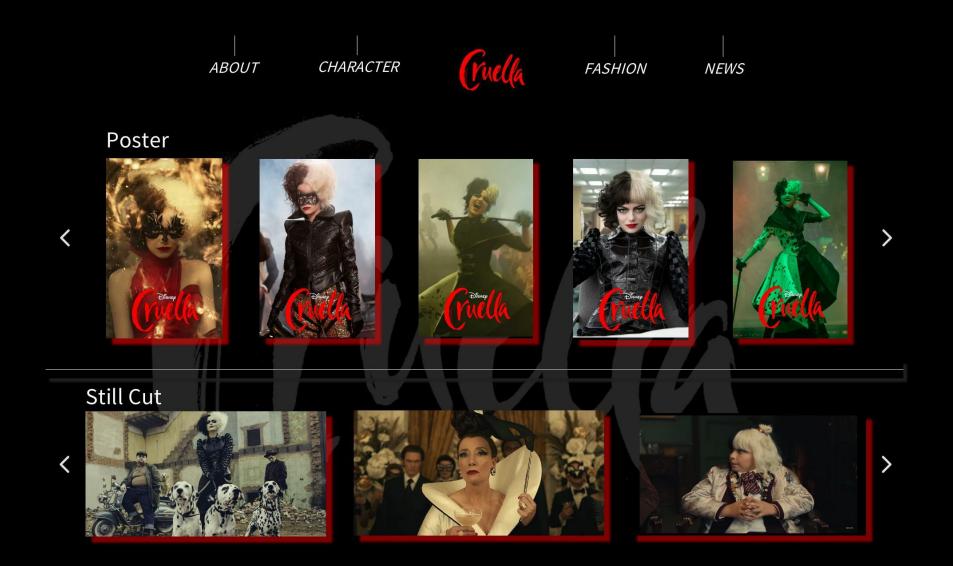


Main page-2

Main page-2는 offical trailer와 poster & still cut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Main page-2에서 포스터를 클릭하면 이동되는 페이지입니다. poster와 주요 still cut 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ABOUT

About 페이지 입니다.

"cruella"의 정보와 영화를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ABOUT

CHARACTER



FASHION

NEWS



개요 드라마, 범죄, 코미디 미국 133분 2021 .05.26 개봉

감독 크레이그 질레스피

처음부터 난 알았어. 내가 특별하단 걸 그게 불편한 인간들도 있겠지만 모두의 비위를 맞출 수는 없잖아? 러다 보니 결국,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지

우여곡절 런던에 오게 된 나, 에스텔라는 재스퍼와 호레이스를 운명처럼 만났고 나의 뛰어난 패션 감각을 이용해 완벽한 변장과 빠른 손놀림으로 런던 거리를 싸쓸이 했어 도둑질이 지겹게 느껴질 때쯤, 꿈에 그리던 리버티 백화점에 닉하산(?)으로 들어가게 됐어

거리를 떠돌았지만 패션을 향한 나의 열정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거든 근데 이게 뭐야, 옷에는 손도 못 대보고 하루 종일 바닥 청소라니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런던 패션계를 꽉 쥐고 있는 남작 부인이 나타났어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 난 남작 부인의 브랜드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었지 꿈을 이룰 것 같았던 순간도 잠시, 세상에 남작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 그래서 난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로 했어 잘가, 에스텔라 난 이제 크루엘라야!



CHARACTER

CHARACTER 소개 페이지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포스터와 조연들의 특징을 적었고, 주인공의 포스터를 색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주인공 포스터의 색을 살리는대신 조연포스터들의 색을 살리고 주연 포스터는 흑백으로 톤다운하여 강조했습니다.

CHARACTER **ABOUT**



FASHIO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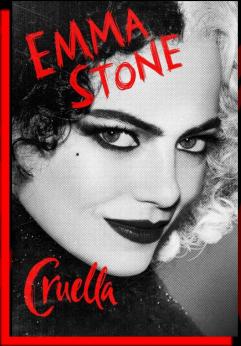


가족같은 친구. 조금 멍청하고 과격한편



Jasper

크루엘라와 어<mark>린 시절부터 알고</mark> 지낸 크루엘라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족같은 친구. 영리한 편.





The Baroness

부유한 재산을 상속받은 패션계를 꽉 크루엘라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동창 잡고 있는 귀족. 크루엘라의 복수대상.



Anita

인 저널리스트.

CHARACTER (상세)

"cruella"의 주인공의 소개를 담은 상세페이지 입니다. 영화 스토리상 주인공의 역할이 Estella와 Cruella De Vil로 나누어져 있어 따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 ABOUT

CHARACTER



FASHION

NEWS



Cruella De Vil

Emma Stone

반은 검고 반은 하얀 머리칼을 가진 평범하지 않은 소녀.

1970년대 말의 런던으로 옮겼다. 여기서의 본명은 '에스텔라'이고 크루엘라라는 가명은 어머니가 어린 크루엘라에게 "네 이름은 에스텔라지 크루엘라가 아니란다."라는 대사를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언급되며 이후엔 아예 에스텔라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또 다른 인격으로 간주되어 에스텔라 본인도 크루엘라와 에스텔라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듯한 대사를 하기도 하고, 재스퍼와 호레이스까지 크루엘라로 변해버린 에스텔라를 보고는 전의 '에스텔라'가 그립다는 식의 대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드 빌'이라는 성은 자동차 '팬서 드빌'에 붙어 있던 'De Vil'이라는 번호판에서 따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Estella

Cruella De Vil

FASHION

"cruella" 영화는 FASHION이 주된 포인트라 생각되어 FASHION을 강조하기 위하여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NEWS 페이지 입니다.

NEWS 페이지는 "cruella"에 대한 각종 소식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NEWS 상세페이지에는 소식들의 상세정보나 뉴스로 구성하였습니다.

ABOUT

CHARACTER



FASHION

NEWS

01 Cruella & Mac Collaboration





02 Cruella Graffiti Art



03 Hanbok illustration





NEWS - 1

NEWS 페이지의

Cruella & Mac Collaboration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Cruella & Mac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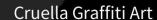
"크루엘라 컬렉션 바이 맥" 출시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맥(M·A·C)과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 크루엘라>의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더 디즈니 크루엘라 컬렉션 바이 맥' (The Disney Cruella Collection By M.A.C)이 출시된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펑크 & 뉴 웨이브 트렌드 속 파격의 아이 콘인 '크루엘라'는 정해진 틀을 거부하고 독보적 스타일로 디즈니 역사상 전 무후무한 아이덴티티를 지닌 캐릭터다.새로운 '더 디즈니 크루엘라 컬렉션 바이 맥'은 틀을 깨는 반항적인 그루브,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이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패셔너블한 캐릭터 크루엘라가 새로 공개될 영화에서 다시 한번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순간을 축하하면 반항적이고, 화려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컬렉션 립, 아이, 페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됐다.

NEWS - 2

NEWS 페이지 Cruella Graffiti Art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유튜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크루엘라", 그래피티 아티스트 "알타임 죠" 특별 콜라보 제작 영상 공개

크루엘라와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알타임 죠의 특별한 콜라보가 공개돼 화제를 모은다. 이번 콜라보에 참여한 알타임 죠는 해외 각지에서 그래피티 작업과 라이브 페인팅, 전시회 등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공개된 그래피티 제작 영상에는 "꼭 보고싶은 영화인데 제가 같이 그래피티로 참여하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알타임 죠 아티스트의 소감과 함께 '크루엘라'만의 파격적인 이미지를 감각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이목을 끈다. 이번 작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캐릭터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나타냈다. '크루엘라'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 그레이, 화이트, 레드 컬러만을 사용해 강한 색채를 사용하는 타 그래피티 작품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콜라보 작품은 오는 23일까지일주일간 CGV여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bok illustration



"조윤진" 아티스트 작품



"흑요석" 아티스트 작품

영화 '크루엘라'가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과 특별한 컬래버를 통해 두 아티스트만의 스타일을 담은 글로벌 아트 포스터를 제작 및 공개했다.

- > 먼저 테이프 아티스트로 매번 감탄을 자아내는 작품을 선보인 조윤진은 크루엘라의 강렬한 모습을 입체감 있는 테이프 아트로 표현해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크루엘라의 시그니처 흑백 컬러 대비가 돋보이는 스타일, 여기에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가미한 포스터가 압도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크루엘라 캐릭터가 가진 고유의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를 고스란히 표현해내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 한국의 아름다움이 짙게 묻어있는 흑요석의 작품 역시 인상적이다. 강렬한 붉은 한복과 우아한 황금빛 한복을 입고 서로 다른 매력을 뽑내는 크루엘라와 남작 부 인의 포스터는 앞선 조윤진의 포스터와 또 다른 매력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 다. 극중 극과 극 패션 스타일로 런던을 뒤흔든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대결을 한국 적인 비주얼로 표현해내 감탄을 자아낸다.

Thank you